

[나의 책, 나의 학문]

교수의 길, 학문의 길

유목상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나의 이 글이 학문을 하는 분에게 무슨 참고가 되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다. 혹시나 심심풀이 破閑으로 읽어보는 분이라 할지라도 읽고 난 뒤 씩씩함을 느끼게 한다면 안 쓰기만 같지 못해 서이다. 우연하게도 나와 같은 길을 밟아온 분이 계시어 공감이라도 얻게 된다면 큰 위안이 되겠고, 학문하는 데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보람이 없겠고, 이도 저도 아니라면 스스로의 달램으로 이 글을 쓰기로 하였다.

I. 나와 국어학과의 만남

나는 1949년 9월에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英文科였다. 강의를 통하여 짙은 기억을 남겨 준 분으로 金允經, 李寅基, 金善琪, 朴術音, 崔載瑞 교수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인상적인 강좌로는 김윤경 교수의 '나라 말본' 강의와 박술음 교수의 高等英文法이었다. 이인기 교수에 대한 기억은 그분의 강의에서 만점을 받아 강의실에서 기립 박수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찬 같아서 쑥스러우나 안동 여중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한 K 교장이

산 증인이다. 공부에 심취한 청순한 시절은 잠깐에 그치고 말았다. 1950년의 動亂이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나는 중학교 동기인 K씨의 도움으로 시골 중학교 준교사로 3년 동안 근무하였다. 주로 영문법을 맡았는데 그 당시 중학교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법의 덕택이었다. 영어과 교사로서 영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 방법이 번역주의(translation method)였기 때문이라 회고된다. 그런데 학업을 중단한 채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었다. 심한 좌절감 때문이었다. 복교를 결심하고 학교를 찾았으나 편입학 시험을 거치라는 것이었다. 당시 신입생 입학시험과 편입학 시험이 같은 날짜에 있었는데 문교부의 지시로 전국의 모든 대학의 입시 날짜가 열흘 정도 연기된 때였다. 영문도 모르고 연기된 입시 날짜에 학교를 찾으니 편입학 시험은 처음 잡힌 날짜대로 치렀다는 것이었다. 그 일이 내가 피턴(p-turn)을 하게 된 動機이다. 뒤에 국회 도서관장을 지내신 바 있는 姜周鎭(그 당시는 姜尙雲) 교수의 앞날을 내다보라는 권유의 말씀으로 中央大學校 國語國文學科에 편입하게 되었는데 12명 지원에 나 한 사람이 뽑혔다. 입학 후 友鶴 梁在淵 교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으며, 이어 若泉 金敏洙, 蘭汀 南廣祐, 健齋 鄭寅承 교수님들을 차례로 만나게 되고 그 가르침으로 해서 국어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Ⅱ. 국어국문학 교수들과의 만남

나는 대학에 다니면서 파트 타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였다. 李泰極 교수가 國語國文學會 代表理事로 계시던 시절(1956~57)에 학회의 유급 간사로 있으면서 회무를 돕는 여러 일들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다. 李能雨, 許雄, 李泰極, 朴晟義, 劉昌惇, 朴魯春, 全光鏞 여러 교수이다.(無順) 한글 학회 寬勳洞 시절 小辭典 편찬에 참여하여(1958) 崔鉉培, 權承昱, 李江魯, 柳濟漢 선생을 만나게 되어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입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國學 分野와 學會의 기능 등에 대한 理解에 도움을 얻었으며 학문에 대한 羨望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오르지

못할 나무'로 보고 교수에의 길은 꿈꾸지도 못했다. 그 뒤 교수 초년에 학교 문법 통일 협의회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어(1966~67) 당시 元老 一石 李熙昇 선생, 心岳 李崇寧 선생을 비롯하여 金亨奎, 李應百 교수, 그 밖의 여러분을 뵈었고 큰 가르침을 얻었다.

Ⅲ. 나의 문법학 전공

학부 재학 시절에 양재연·김민수 공저로 국어국문학사전의 편찬 작업이 있었다. 불발에 그쳤으나 이 작업에 동원되어 이른바 육전소설(六錢小說) 작품의 해설을 한 바 있다. 그러다가 남광우 교수의 古語辭典 편찬에 가담하게 되어 語學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는 평소에 대학 교수를 꿈꾸 바가 없었다. 1958년 봄 대학원 입시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남광우 교수님으로부터 응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주저하였으나 명령은 단호하였다. 입학금을 낼 돈도 없었는데 아르바이트하던 D출판사의 사장의 배려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이다攷'로 학위를 받은 이듬해(1964) 專任講師로 講壇에 서게 되었다. 모두 恩師님들을 잘 만난 덕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내가 국어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 文法學을 선택한 배경은 매우 깊다. 중학 시절에 日本語文法을 高橋衆造 선생에게서 배웠고, 광복 후 '신편 고등국어문법'(백수 정렬모 지음)을 접했고, 金允經 교수로부터 '나라말본'을, 金敏洙 교수로부터 國語文法論 研究(通文館, 1960)를, 鄭寅承 교수로부터 '표준 고등말본'을 직접 강의 받았다. 우리나라 문법 연구의 큰 흐름을 두루 살핀 셈이다. 문법학을 전공하게 된 것이 나 개인의 취향도 있었지만 석사 논문을 문법 분야로 잡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다.

Ⅳ. 나의 교수 생활과 학문관

教授하는 길과 學問하는 길이 병진·발전하는 길로 여겨 왔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재직 30년 60학기 동안 講義를 거른 일이

없으며 따라서 학생들과 떨어져 지낸 적이 없다. 1982년 봄에 교무처장 보직을 그만둘 때 L총장님이 원하는 대로 한 해 두 해도 좋으니 밖에 나가 머리를 식혀 쉬다 오라 하였으나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그 일을 뒷날 후배 교수에게 말하였더니 바보 중의 상 바보라 하여 핀잔을 들은 바 있다. 나는 敎學相長의 틀 속에서 학문이 신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강의를 열심히 하다 보면 研索을 하게 마련이고 그 연색의 결과가 논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論理이다. 어느 科學院 教授의 意見과는 正反對되는 견해이다. 나의 논리는 결국 교수의 논문은 敎科와 상관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당 교과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연구는 用役 研究이거나 外道性 研究로 학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때로는 교수의 正機能에서 벗어나는 일로 보는 것이다. 그러한 견해가 보편성을 잃은 管見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 왔다. 그 결과 나의 論題가 文法論에 局限되어 있고, 論著 또한 미미하나마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V. 나의 논저에 대한 자평

호박에 줄을 긋는다 하여 수박이 되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의 값어치는 스스로 안고 있는 것이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한다고 하여 붙어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세에서 스스로 평가해 보고, 남의 평가를 기다려 보는 것이 발전적 단계에서 보면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런 심정에서 가볍게 논평코자 한다.

1. 새 중등국어문법(1966. 문교부 인정5133)과 새문법(문교부 인정15)

논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알다시피 당시의 학교 문법서는 認定圖書로서 개인 명의의 출판으로 발행되었으나 집필상의 指針이 있어 그 統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비록 그 이론이 바르지 않더라도 따르는 길밖에

없었으므로 學問과는 상관이 없으며, 記述의 내용을 문제삼아 학문적 지조나 변질을 云謂할 수는 없는 성질의 著述로 본다. 굳이 든다면 文章節과 成分節을 구분하고 성분절을 지닌 문장절을 單文으로 본 문법 해석이다. 兒學의 教授로 저자가 될 수 없어 鄭寅燮 교수와 공저로 할 작정이었으니 당시 渡美中이어서 無涯와 共著로 하게 되었다.

2. 連結敘述語尾 研究(1985. 집문당)

나는 用言이라는 문법 술어도 싫어하지만 ‘용언=풀이씨’라는 개념적 等式을 拒否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술어가 日本 文法에서만 쓰이는 用語이고, 그 概念 또한 초기와는 달리 修正되어 있기 때문이다. 活用語의 基本形은 活用어의 여러 語形을 대표하는 추상적 형태(abstract unit)로서 ‘다’는 活用語의 徵表이다. 또한 體言·用言 同行 理論도 거부한다. 이것은 비유컨대 남자와 여자는 부부의 관계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억지쓰기와 같은 논리이다. 語尾란 용어도 적절치 않으나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으나 그 쓰임의 次元이 다르다. 單語性 語尾와 敘述性 語尾의 區別이다. 모든 用言이 複式型(complex form)이라는 것은 常識 위의 常識인데도 語尾의 二重機能說을 말하는 것은 우리말본을 잘못 이해하고 受容한 데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主述關係의 構成에 놓이면 예외 없이 文章(sentence)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言語構造體의 결정 인자는 添加語에 있어서는 그 構造指標인 形式辭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周時經 文法이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3. 韓國語文法 理論(1990. 일조각)

이 책에 수록된 논문은 1962년~1988년에 걸쳐 발표한 문법 관련 글들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의 위치에서 살펴보면 표현에 있어 漢字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내용상으로 볼 때 얼마

만큼의 學問的 過誤가 있었으나 하는데 대한 판단은 이 논문을 읽는 이의 몫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대강 다음과 같이 압축될 것이다.

1) 이다(이라)攷(1962)

나의 석사 학위 논문이다. 이 논제는 지도교수이던 鄭寅承 교수의 지시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오랜 동안 ‘이다’의 형태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던 때이다. 당시의 ‘한글’誌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論點은 그 原形(original form)을 밝혀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테스트를 釋譜詳節로 하여 조사해 본 결과 예외 없이 [-ira]로 나타나 있었다. [-이]로 끝나는 말 아래에서 외형상 [-라]로 나타나지만 聲調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드리[橋]+이라’의 결합은 ‘드 : 리 · 라’(dari+ira > dari : ra)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이]음의 重出로 해석된다. ‘이다’의 [이]가 발음의 조절을 위한 것이란 주장이나 명사의 일부라고 하는 주장[체언의 활용]은 설득력을 얻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受苦는 生과 老와 病과 死왜라’에서나 ‘德과 지 조와 ㄴ즈란디’에서 그 실체를 엿볼 수 있다. 健齋 선생이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필자에게 이런 숙제를 남기셨다. ‘主格’의 ‘-이’와 ‘補格’의 ‘-이’와 ‘이다’의 ‘이-’에 어떤 상통되는 자질이 있지 않을까’ 하신 말씀이다. 謎題로 남게 되었다.

2) 國語의 格助詞 定立考(1965)

격이란 資格의 격이 아니라, 명사의 통어상의 ‘자리’를 뜻하는 영어의 case를 옮긴 말이다. 名詞의 統語上의 자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添辭的이기 때문에 格助詞라 이름하게 된 것이다. 문법상의 機能 標識이기 때문에 構成要素 兩者間的 關係에서 그 이름[名稱]이 붙여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意味資質에 따른 이름 붙이기는 下位의 分類이기 때문에 格이란 用語를 붙이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본 것이다. 活用 語尾의 分類과 그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격 이름의 혼란상을 덜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게 된 小論이다.

3) 國語 補語에 대한 考察(1966)

보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들고, 우리 文法史에서의 補語觀을 내보인 뒤, 우리말 補語의 규정을 제시하였다. 보어에 대한 규정은 目的語에 대한 규정과 같은 토대[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他動詞라 하듯이 보어를 취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不完全自動詞·不完全形容詞로 본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타동사의 意味 充足語가 目的語이듯이 불완전자동사나 불완전형용사의 의미 充足語가 補語라는 論旨이다. 목적어나 보어는 의미 자질에 缺性이 있는 용언을 補足해주는 위치에 있는 성분이다. 따라서 문법성 문장(sentence)의 直接構成要素(IC)가 아니며 敘述部 내부의 한 構成要素인 것이다. 결국 목적어와 보어는 그 外延을 달리한다는 전제 아래서 분류된 것이다.

4) 國語의 文章構成單位에 대한 考察(1969)

西洋文典에서는 單文·重文·複文·混文 등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나, 우리말에선 單一文이나 複合文이나의 둘로 분류함이 옳다. 複文은 單文의 複數的 結合構造일 따름이다. 그 결합에 있어 對等的이다 主從的이다 하는 것은 意味聯關의 사항으로 連結語尾를 달리함으로써 실현되는 결과이다. ‘산이 높고, 골이 깊다. ↔산이 높으니, 골이 깊다.’는 표현 의도가 다를 뿐, 構造로 보아 아무런 다름이 없다. 우리말은 添加語系이기 때문에 八重 九重의 複文도 가능하다. 우리말본이 ‘가진 월(包有文, 有屬文)’이라 하여 그것을 겹월(複文)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同意하지 아니한다. ‘embedded sentence’란 용어는 있어도 ‘embedding sentence’란 문법 술어를 어느 문법에서도 들어본 바가 없기에 포유문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成分節(씨처럼 쓰인 마디)을 從屬節(딸림 마디)로 본 것에 대하여서도 그 어떤 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 從屬이라 하면 그것을 지배하는 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상대자(counterpart)가 없다. ‘향기가 좋은 꽃이 만발하였다’에서 ‘향기가 좋은’의 主節(으뜸 마디)로 ‘꽃이 만발하였다’를 잡았

으나 그것은 큰 잘못이다. ‘향기가 좋은’은 主述關係의 구성이긴 하나 文으로 換置될 수 없는 主述構成이다. 그런 이유에서 ‘향기가 좋은’의 짝은 ‘꽃’이다. ‘향기가 좋은 꽃’으로 해서 名詞句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실증적인 예로 ‘달이 밝기가 낮과 같다.’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가진 월(이른바 안은 월)이 어디에 있는가. 서양말에서는 구조상으로 보아 文(sentence)과 節(phrase)의 차이가 없다. 그러기에 현대 언어학에서는 ‘clause’란 용어를 기피하고 있다. 우리말에선 이와 다르다. 비록 主語-敍述의 構成이라 할지라도 ○○詞形의 어미를 취하게 되면 單語 상당의 것이 되게 마련이다. 실증적인 예로 ‘달이 밝기가 낮과 같다’를 들 수 있다. ‘달이 뜨는 저녁’은 節과 單語의 만남이 아니라, 기본 구성형으로 보면 ‘단어와 단어의 만남’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새문법(1967)에서 成分節이란 용어를 내걸어 이러한 節을 가진 文을 單文으로 처리하고 複文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한 문장 안에서 主述關係가 겹쳐 나오게 되면 複文이라 규정하는 것은 서양 문전에 맹종한 결과이다. 그들의 말에서는 구성상 복문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接續語에 대한 考察(1970)

문장의 머리에 놓여 문맥을 이어주는 ‘그러나, 그러니,...’類의 단어는 接續詞가 아니며 代用副詞語로 보았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용서를 받으리라’에서 앞뒤 문장은 마침표로 각각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접속의 표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뒤 文章 안에 자리한 成分이다. 접속의 기능은 연결어미가 하고 있다. 文脈을 위하여 쓰이는 단어들은 의미 연결을 위한 것일 뿐, 構文上的 接續 標識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의 범주에 두는 것이 바른 문법 처리라 본 것이다.

6) 主格連鎖型 文章에 대한 考察(1971)

한국말을 英譯하려면 모든 서술어는 動詞化하여야 한다. 그러한 결과 모든 주어는 그 동사의 主體에서 찾게 되는 터이다. 우리말에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 / 코끼리가 코가 길지요'와 같은 표현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런데 한동안 이것을 '코끼리의 코가 길다.'로 변형하여 論点相違의 誤謬를 빚은 바 있었다. 이런 흐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 所論이다. 형식상으로 보면 動作 主語만이 있는 게 아니고 屬性 主語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속성이 어디 자립적인 존재인가. '情이 있다, 情이 없다 / 화가 난다, 화가 치민다 /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 따위에서 '있다, 난다, 치민다, 부르다, 고프다' 등에 서술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정이, 화가, 배가' 등을 주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것이 形式論理이다. 그런데 '그 어른이 정이 없다, 내가 화가 났다, 잉부가 배가 부르다'에서의 주어는 당연 '그 어른이, 내가, 잉부가'이다. 여기서 主格助詞의 거듭됨을 볼 수 있으나 二重 主語란 용어를 쓸 수는 없다. 레벨(level)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時計가 주어가 될 수 있듯이 논점을 달리함으로써 그 시계의 부품 하나 하나가 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손자는 나다'에서 그 쓰임으로 보아 '-의'의 레벨이 같지 않음과 같은 이치이다. 주시경의 '본드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말이 언어 유형상 첨가어에 속하고 있다는 특성에 좇아 구조 파악을 피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7) 統語論의 構成에 의한 語形成에 관한 研究((1974)

문제 제기는 '이얹이, 옷걸이, 시집살이'의 '-얹이, -걸이, -살이'가 접미사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만일에 이들을 접미사로 인정한다면 '배불리, 응석받이, 국말이, 눈가림'의 '-불리, -받이, -가림'도 같은 문법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어사전에서는 語分析을 무원칙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이-얹이, 머슴-살이; 걸음-걸이, 눈-가림; 막별-이, 앞지르-기, 모내-기, 모-내기' 등 제멋 대로이다. 接辭가 머무는 자리는 單語이다. 북한에서 '덧붙이'라 이름 지은 것은 接辭=添辭의 외국 서양말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막별-이'의 '막별-', '앞지르기'의 '앞지르-', '달리기'의 '달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접사는 그 몸통을 단어로 한다는 기본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갈-이, 굳-이'와 같은 형태

분석을 하게 된 것이다. 분석론과 결합론을 혼동한 것이다. 복합어이든 파생어이든 그 母體는 단어에 있으며 덧붙이꼴이 있는가 하면, 接尾辭인 경우 활용체계에서 벗어난 交替型 轉成 接尾辭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8) 國語의 補助敘述詞에 관한 研究(1980)

우리 국어에서 본래적인 보조 서술사(보조용언을 달리 표현한 용어로 썼음)는 없으며 분포에 의하여 보조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밝혔다. 보조용언을 3종으로 나누어 살피고 그 쓰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듯하다’ 類의 말들은 잘못 세워진 단어임을 지적하였다. ‘그가 나를 기쁘게 한다.’에서 ‘하다’가 보조동사인가에 대하여는 檢討의 여지가 있다. ‘그가 나를 기쁘다’는 통사상 불가능하지만 ‘그가 나를 한다’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지나친 보조적 사용이 日帝 강점기에 일본어 直譯의 産物이거나 영향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뒷날 하게 되었으나 고증된 바 없다. 우리의 옛 문헌을 통하여 과거의 용법 예를 검색해 보는 일이 긴요하다고 여기는 터이다.

9) 國語의 活用體系와 語尾分類(1986)

語尾의 활용이란 말은 틀린 말이다. 동사·형용사의 활용이란 표현이 적절하다. 활용은 語尾變化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① 탄 품사(語類)로 변동시키는 변화와 ②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변화의 두 차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활용에 다른 두 範疇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연결서술어미와 副詞形 語尾의 변별을 꾀하였다. ‘관악산을 깨끗하게’라는 표어에는 통어성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관악산을 깨끗하다’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악산을 깨끗하게 (합시다)’로 구조화할 때 ‘깨끗하게’는 형용사의 부사형으로 副詞語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 부사형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이 語尾의 二重機能을 인정하거나 묵인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活用語尾와 轉成接尾辭와의 대응을 이루고 있는 ‘-게: -히(-이)’에서도 부사형의 부사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10) 「큰사전」의 語彙 處理攷(1973)

적절치 못한 처리라 여긴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① ‘듯하다, 듯싶다, 만하다, 법하다, 뵈하다, 성싶다, 체하다’ 따위를 단어로 잘못 설정하였다. 이들이 용언인데도 ㉠관형어와 구성 관계를 맺는 점과 ㉡ ‘듯, 양, 체’등이 語根이 될 수 없으며 ㉢ 하나의 氣息單位로 발음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② 모든 용언의 형태를 ‘-다’로 하였다. ‘가로되, 다가, …’ 따위의 형태를 ‘가로다, 다그다’로 잡은 것은 잘못이다. 類推란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늡다(㉣) : 늣다(㉤)’의 품사 매김이 잘못 되었다. ‘늡다’도 형용사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용법으로는 ‘늡는다’가 아니라 ‘늡어진다’이다. 이러한 품사 매김으로 해서 ‘늡는다, 늣는다, 어둡는다, …’ 따위의 비표준을 근거한 이중의 품사 분류가 늘어나게 되었다.
- ④ ‘피살-하다, 피선-하다’의 잘못된 단어 설정이다. 이런 말은 우리말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하였다 /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다’에 근거하여 ‘당선-하다/당선-되다’가 성립되는 것인데, ‘모 씨가 국회의원으로 피선하였다’는 우리말 표현은 있지 않기 때문이다. 漢文의 懸吐式이라 할 것이다.
- ⑤ ‘-얹이’類의 접미사 처리의 잘못을 들었다.
- ⑥ 이른바 접속부사인 ‘그러나’類의 말들을 ‘그러하다’의 활용형으로 보고 사전에 신지 아니한 처리를 지적하였다. 이들은 用言性을 잃었기 때문에 용언의 테두리에서 제쳐놓아야 하는 것들이다.

11) ‘使動詞·被動詞’의 文法處理攷(1986)

사동사나 피동사는 능동사에서 파생된 동사의 한 갈래이다. 과거에는

능동사의 變形으로 보고 使動形, 被動形으로 일컬어 왔으며 사전에도 登載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보조어간’이란 것이었는데 이들을 接辭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派生語로 등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들은 한 單語이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칠수에게 책을 읽힌다 /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었다’에서 ‘使動文 되기, 被動文 되기’는 당췌한 말(nonsense)인 것이다. 영어의 被動文은 被動態(passive voice)로 ‘be + 過去分詞 by’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실현된다. 곧 하나의 동사로는 피동의 뜻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 또한 피동문은 능동문의 완곡 표현으로서 같은 의미[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다.

‘Everybody respects him = He is respected by everybody’로서 능동태인 ‘S+V+O’의 文型에서 보아 서술동사 V가 두 개 곧 is + respected가 되어 is는 he의 몫이고 respect는 everybody의 몫이 되는 까닭에 構文 變形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말로 충실히 그대로 옮긴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 = 그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는다’로 되는데, ‘존경하다’의 主體와 ‘받다’의 대상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먹히다’를 어떻게 분석하여 能動 主語와 被動 主語로 양립시킬 수 있겠는가. 따라 ‘능동:피동, 주동:사동’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말의 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형용사를 서술어로 삼는 말에서 動作 主語를 내세우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에서는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單詞의 動詞가 수없이 많다. 이런 동사를 서술어로 취하게 되면 그 主語는 의미상 자연스러이 被動主語가 되는 것이다. 만약 피동문 되기를 굳이 세운다고 한다면 그 文의 敘述詞는 두 개의 動詞이어야 그런 主張의 근거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12) 用言과 動·形容詞의 辨析(1988)

體言이니 用言이니 하는 용어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日本 文法에만 사용되는 術語인데 왜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자못 불만스러운 것이 필자의 감정이다. 이른바 體言·用言·修飾言 獨立言·關係言이라 하여 「다섯

言」을 品詞의 上位概念으로 확정한 쪽은 文教部이다.(편수자료 제5집) 우리말본의 체언(임자씨), 용언(풀이씨), 修飾詞(꾸밈씨), 관계사(걸림씨, 조사)에서 한 걸음 더 앞선 것이다. 당초 體用이란 말은 ‘事物의 本體와 그것의 作用’에서 비롯하였으나, 오늘날 이 용어의 본 고장인 日本에서조차도 우리말본에서와 같이 體言을 主體詞, 用言을 說明詞(陳述詞)로 보고 있지 않다. 오늘날 體言은 實體語(substantives), 用言은 活用이 있는 單語로 보고 있는 터이다. 동사·형용사의 개념은 의미상의 분류이기 때문에 그 변별은 語幹에 있다. 주시경 문법의 「움」과 「엇」에서 구분 짓는 것이 지름길이다.

주시경 문법의 「움」·「엇」에 ‘-다’를 붙임으로써 活用이란 체계가 성립되었고 또한 用言이란 술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드디어는 모든 용언(=활용어)은 서술력을 지닌다고 보게 된 것이다. 統語關係를 규격화하는 규격어미를 제외하고 敍述語로 쓰이는 동사 형용사는 사실상 다 동사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서술성 어미는 바로 말하는 이의 陳述이기 때문에 narrate가 동사인 것처럼 동사인 것이다. 우리말은 말하는 이가 있는 언어이다. 진술의 대표격을 斷定에 둔다고 할 때 그 단정은 思惟作用이기에 動的인 것이다. ‘이 꽃이 저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 할 때 ‘아름답다’의 의미 자질은 ‘(말하는 이가) 이 꽃이 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라 말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국 用言이란 활용하는 語類를 가리키는 용어이며, 활용한다고 하여 모든 활용형이 서술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3) 띄어쓰기[分書] 再檢(1964)

‘듯하다’類의 단어 설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 氣息單位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語根이 없기 때문에 단어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예의 하나로 ‘지멸히 긴 줄은 모르되 애 그칠 만흐더라’는 ‘애 그칠 만흐더라 → 애 그칠만 흐더라’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되’(한글맞춤법 총론 3)에 묶여 있지 말고 形式名詞, 形式化된 補助動詞, 補助形容詞 따위를 폭넓게 붙여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14) 文法術語 異稱考(1967)

하나의 대상을 두고 달리 일컫고 있는 문법 용어에 대하여 거론한 것이다. 基本形:原形, 不規則:變則, 補助語幹에서 接辭로 볼 것들, 複合語와 合成語의 개념, 不完全動詞의 外延, 연결어와 접속어, 絶對格과 主題格, 助詞: 助辭, 形式名詞: 依存名詞, 不完全名詞, 活用: 語尾變化, 尊待法上的 用語들 따위에 대하여 예시하고, 순화 통일의 필요성을 들었다. 고유어 계열의 술어와 한자어 계열의 용어 대립에 대하여는 새삼 말할 것도 없는 터이다.

4. 韓國語文法の 理解(1993. 일조각)

문법 처리에 있어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적시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1) 文의 토대를 $S \rightarrow NP + VP$ 의 공식에 맞추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술구(PDP=Predicate Phrase)가 서구어에서는 구조상 주어와 대응되는 존재이지만 첨가어인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斷定이나 主張 또는 指定과 같은 判斷의 主体는 話者이며, 敘述 內容(개년 부분)만이 주어와 상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모든 활용어는 실질 개념과 순수 기능 개념이 함께 하고 있어서 형식상의 구성으로는 三要素이고, 의미상으로는 「(말하는 이) 주어 +(주어에 대한) 서술 내용-(말하는 이의) 판단 기능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 책 p. 119)
- (2) 주시경 문법에서 단어로 본 虛辭 語尾를 實辭와 합하여 한 單語로 본 것을 근거 삼아 助詞를 名詞의 일부로 삼을 수는 없지만, 虛辭인 이상 助辭로 이름하여 명사의 附屬辭로 다루는 게 옳다고 본 것이다.

- (3) 형태소론(morphemics)과 단어 형성론(word-formation)을 혼동하고 있는 과오에서 벗어나야 한다. 형태소론은 단어라는 언어형식에 대한 究極 要素 分析에 귀착되는 것이지만, 단어 형성론은 그 기반이 단어에 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되-도록, 실없-이’와 같은 단어의 집적구성요소(IC)의 분석은 이 단어의 밑바탕에 단어가 內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어 구성의 과정을 잘못 밝힌 것이다. ‘실-없다 : 실-없이’가 바른 대응이며 바른 분석이다. 파생이나 활용이나 첨용의 기반이 단어에만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언어 형식을 基底(bases)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지식이다.
- (4) 서양말에서 라틴말이나 그리스말에서 語原을 빌려 오듯이 우리는 漢字에서 무한히 차용하고 있다. 단지 외톨로 쓰이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해서 語原性 漢字를 도매 값으로 接辭視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바로 小賣價, 最高價의 ‘價’를 접사로 처리한 것이 그 표본이다. ‘소매 값, 최고 값’의 漢字語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 (5) 접미사에 두 가지 類型이 있다. 북한에서는 接辭를 ‘덧붙이’란 용어로 다듬어 쓰고 있지만 큰 잘못이다. 접미사엔 덧붙이형도 있지만 語尾型도 있다. 곧 交替型 접미사도 있다는 것이다. 서양말에서 ‘ending’이란 용어를 꺼리는 이들이 ‘inflectional suffix : derivational suffix’로 구분하는 그것과 같다. 이 용어에 따르면 ‘곱게 길러 ; 고이 길러’에서 앞엿것은 활용 접미사요, 뒤엿것은 파생 접미사이다.
- (6) 補助詞는 ‘보-조사, 보조-사’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만약에 ‘보조 조사’의 줄이라면 마땅히 ‘보조(조)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조)조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격-조사’에 맞추어 세 음절의 말로 만들기 위한 억지다. 김씨, 이씨도 있지만 사공씨, 선우씨도 있지 않은가.
- (7) 용언의 기본형은 그 단어를 대표하는 추상적 形態이다. 영어에서 原形과 現在形은 같은 꼴이지만 그 개념이 다른 것과 같은 이유

에서이다.

- (8) ‘듯하다, 만하다’ 따위는 잘못 설정된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3절 제47항에서 해당 부분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 이미 국어사전에서는 죽은 말들이 되었다.
- (9) 활용 어미 가운데서 그 한 갈래를 轉成語尾라 이름한 것은 잘못이다. 轉成이란 말은 ‘品詞 轉成’의 준말이다.
- (10) 우리말의 冠形詞節이나 副詞節, 名詞節은 補文이 아니다. 이름 그대로 主述 構成으로 짜여진 冠形語이며 副詞語이며 名詞 相當物이다. 영·독어에서의 補文은 명사구(noun cluster)에 들지 않으며, S-group modifier라 하여 插入文이다. 결정적인 증거를 독일어에서 들 수 있다. (Der Herr, den Sie gestern gesehen haben, ist ein Franzose.) ‘당신이 어제 만난, 그 신사는 프랑스 사람이다’로 쉼표를 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한글 맞춤법에는 節 사이에 쉼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11) 語尾란 말이 활용어[용언]의 끝자리 형태소란 뜻인데 여기에 ‘語末 語尾’란 당췌운 말이다. ‘先語末 語尾’는 ‘prefinal ending’의 直譯으로서 굳이 쓰고 싶으면 ‘語末 先語尾’가 어법에 맞으며, 일찍이 劉昌惇 교수가 先行語尾라 한 바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 (12) 이른바 使動文, 被動文은 變形文이 아니며. 使動詞, 被動詞에 의하여 의미상으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글이다.
- (13) 이른바 時制의 형태소로 잡고 있는 ‘-었(-았-), -겠-’ 따위는 시간 부사(adverbs of time)와 함께 할 경우에 한정되며, 그 밖의 경우는 事實의 表現에 쓰이는 것이다.

5. 그 밖의 것들

북한의 맞춤법(1989. 북한의 말과 글), 句語(phrasal word) 設定에 대하여(1990), -하다 語彙放(1990), 辭典의 올림말 차례잡기의 理論的 背景

(1991). 漢字(語) 接辭 設定에 관한 試攷(1991), 漢字語와 漢文語의 分辨 試攷(1994), ‘先語末語尾’에 대한 論評(1995), 표준 고등말본에 대한 照明(1996), 國語 表記 半世紀의 試鍊과 그 止揚(1998) 등이 있다.

여기에서 남기고 싶은 말은 같은 형태 같은 의미로 쓰이는 漢字語의 품사 매김이 韓中 사이에 다르게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몇 개의 어휘를 예로 들어 보면

- ① 同情, 洗手, 流失, 坐視, 重視, … (中에선 動詞, 韓에선 名詞)
- ② 公平, 優秀, 類似, 正直, 重要, … (中에선 形容詞, 韓에선 名詞)

와 같다. 오늘날의 언어학적 접근에 따르면 體言은 格助詞의 添用을 받는다는 특성에서 그 위치가 확인된다. ‘-이, -을, -이다’를 첨용 시킴으로써 확인한다. 그런데 이들이 ‘-하다’를 동반함으로써 예외 없이 用言化한다. ‘하다’ 자체가 근원적으로는 타동사이지만 접미사처럼 쓰일 경우에는 語基에 따라 動詞 되게 하기도 하고 形容詞 되게 하기도 한다. 이런 種類의 漢字語 名詞에 대하여서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 ‘홍수로 제방이 크게 유실’이라는 기사에서의 ‘유실’은 ‘流失하다’의 약형으로 우리말 ‘하다’를 토 달기로 본 한문 투의 표현이지 명사 용법은 아니다. 이런 말들은 ‘-하다’의 동반으로 비로소 우리말의 체계 속에 들게 된 것이며, 이들이 名詞化한 것은 역성(back-formation)에 의한 결과이다. 또한 일본 강점기에 일본말이 영향된 바도 크다고 보는 바이다. 검색을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보는 것이다.

6. 나의 남은 과제

국어 형태론의 제 문제와 국어통사론의 제 문제로 뽑아 놓은 사항들에 대하여 短評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들을 모아 ‘韓國語 文法의 懸案’이란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으나 뜻 같지 못하면 이미 내놓은 ‘한국어 문법의 이해’에 보태어 기울 작성이다. 이것들을 제시하여 후학의 검증

을 받고자 하는 바이다. 오늘 내일의 일로 보지 않으나 우리 겨레가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한 우리말은 살아 있을 것이고 우리말에 대한 탐구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Ⅵ.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이 글의 첫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晩學으로 뜻하지 않은 가운데 교수의 길, 학문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동란으로 해서 많은 친구들 특히 학우를 잃었다. 내가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다시 다닐 때 6.25 전 나와 같이 하숙집에서 기거했던 이미 고인이 된 K군은 동숭동 소재의 S 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명륜동 소재의 S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뒤로 처져 옛친구를 잃고 뒤늦게 만난 후배 동학들과는 나이 차로 해서 어울리지 못했다. 시간적 상황이 공간적으로 사람을 갈라놓아 고독한 가운데 살아온 것이다. 가까이 뒤흔던 恩師님들은 타계하셨고, 이제는 학문에 대해서 또는 전공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 담론하며 의견을 나눌 배움의 벗도 얻지 못하고 있다. 못내 아쉬운 일이다. 나는 교수의 길이나 학문의 길에서 조심조심하며 걸어왔다. 교수의 길에서는 示範의 師道를, 학문하는 길에서는 志操를 마음에 새겼다. 자기의 허물은 자기 스스로가 지게 마련임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여 독단에 흘렀다고 여기지 아니한다. 학문적으로 黽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친 自己愛의 집착일지 모른다.

나의 하찮은 논저들은 거의 전부가 ‘그것이 아닌데’ 하는 반론에 가까운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 좁은 땅의 學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이나 도움의 말을 얻지 못했다. 어찌 보면 외면 당한듯 한 느낌도 없지 않다. 내가 걸어온 길이 고독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회고적인 글을 쓰면서 과연 어느 누가 이 글을 읽어 줄까 하고 혼자 생각하였다. 獨白이어도 좋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임을 밝혀 둔다.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다. 學

會는 교수적으로나 학계로 등단하기 위한 사권의 場이 아니라 학문의 활발한 교류와 비평을 위하여 필요한 모임이라는 것이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바르게 견주어 보는 아량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학과 언어학의 만남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학문의 주체성을 살려야 하며 외국의 언어 이론에 기대어 援用一邊倒로 흘러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도 경험으로 터득해야 할 일이다. 다른 한 가지는 문헌에 대한 소중성을 일깨우고 싶다는 것이다. 나의 조부님이 내 어린 시절 책을 타넘고 하던 때에 ‘冊賤待父賤待’라 하시면서 나무라시던 기억이 난다. 문헌에만 기대어 배워 온 낡은 세대의 탓일 것이다. IT시대에 맞지 않은 말 같기도 하나 요즈음 책을 홀대하는 세태를 보면서 나와 더불어 책이 또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허전함을 느낀다. 杞憂에서 오는 망언인지도 모른다.